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강원, 부산, 경기, 경북)
국외 교육기관 연수결과 보고**

2013. 9.

강원도교육청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강원, 부산, 경기, 경북)
국외 교육기관 연수결과 보고**

차 례

I. 연수 개요	4
1. 목 적	4
2. 연수국가	4
3. 연수기간	4
4. 연수자 명단	4
5. 사전 준비	5
II. 연수 일정	5
III. 연수 국가 이해 및 방문내용	6
1. 영국	6
가. 기본정보	
나. 일반현황	
다. 교육제도	
라. 방문 교육기관 및 활동	
마.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바. 방문소감	
2. 스페인	22
가. 일반현황	
나. 교육제도	
다. 방문 교육기관 및 활동	
라.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마. 방문소감	
IV. 총 평	28

I 연수 개요

1. 목 적

- (선진국사례 수집·분석) 교육선진국인 영국, 스페인의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관계자 면담 및 브리핑 등을 통해 교육정책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한다.
- (우리나라 교육제도 발전방안 모색) 선진국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2. 연수 국가 : 영국(런던), 스페인(마드리드, 톨레도, 살랑망카)

3. 연수 기간 : 2013. 7.29.(월) ~ 8. 4.(일) / 5박 7일

4. 연수자 명단

번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담
1	단장	강원	교육감	민병희	▫ 총괄
2	총무		주무관	권명월	▫ 일정 수립 및 운영 ▫ 총괄 보고서 작성
3	단원		정책보좌관	이은숙	▫ 사진 촬영 ▫ 영국방문 보고서 작성
4	단원		비서	길경훈	▫ 자료 수집
5	부단장	부산	교육감	임혜경	▫ 자료 수집
6	단원		비서	오세안	▫ 자료 수집
7	단원		장학사	유영옥	▫ 영국방문 보고서 작성
8	부단장	경기	교육감	김상곤	▫ 자료 수집
9	단원		비서	한정이	▫ 자료 수집
10	단원		장학사	안순억	▫ 스페인방문 보고서 작성
11	부단장	경북	교육감	이영우	▫ 자료 수집
12	단원		교육시설과장	노치동	▫ 자료 수집
13	단원		공보홍보담당사무관	김호묵	▫ 스페인방문 보고서 작성

5. 사전 준비

○ 연수 참여 교육청

- 개인별로 방문지 관련 기초자료 수집,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 관련 자료 학습
-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는 해당교육청 관련 규정에 의거 자체 처리

○ 주관교육청(강원)

- 국외교육기관 방문 일정 수립 및 운영
- 외교부 및 방문교육기관 사전 협조 공문 발송
- 방문교육기관 사전 질문지 작성

II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제1일 7/29 (월)	인 천 런 던	항 공 (KE907) 전용버스	13:15 17:25 22:0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런던 도착 ○ 석식 후 숙박
제2일 7/30 (화)	런 던	전용버스	07:00 09:00 13:00 18:00	○ 조식 ○ 오전 : 교육관련기관 방문 - Cranford Community College 내부견학 및 브리핑(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해당) ○ 중식 후 런던 역사문화 탐방 ○ 석식 후 자료 정리 및 숙박
제3일 7/31 (수)	런 던	전용버스	07:00 09:00 13:00 18:00	○ 조식 ○ 오전 : 교육 관련 기관 방문 - LVS Ascot 내부견학 및 브리핑 (우리나라 유·초·중·고등학교 해당) ○ 중식 후 런던 역사문화 탐방 ○ 석식 후 자료 정리 및 숙박
제4일 8/01 (목)	런 던 마드리드 톨레도	전용버스 항 공	09:00 12:45 13:00	○ 런던 출발 ○ 마드리드 도착 ○ 중식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14:00 18:00	○ 팔레도 역사문화 탐방 ○ 석식 후 자료 정리 및 숙박
제5일 8/02 (금)	마드리드 살라망카	전용버스	06:00 09:00 15:00 18:00	○ 출발(도시락 조식) ○ 오전 : 교육 관련 기관 방문 - SALAMANCA UNIVERSITY (국립 중·고·대학교 과정 운영) ○ 마드리드 도착 - 프라도 미술관 관람 ○ 석식 후 자료 정리 및 숙박
제6일 8/03 (토)	마드리드	전용버스 항 공	08:00 10:50	○ 조식 ○ 마드리드 출발 • 기내 숙박
제7일 8/04 (일)	인 천	항 공	06:30	○ 인천 도착

Ⅲ 연수 국가 이해 및 방문내용

1. 영 국

가. 기본정보

- 수 도 : 런던(London, 707만 명)
- 인 구 : 약 5천 880만 명
- 면 적 : 241,752 km² (한반도의 1.1배)
- 주요도시 : 에딘버러(Edinburgh), 캠브리지(Cambridge)
- 주요민족 : 앵글로 색슨(Anglo-Saxons), 켈트(Celts)
- 주요언어 : 영어
- 종 교 : 영국 국교(Anglican, 50%), 카톨릭(11%), 개신교(30%), 기타(39%)

나. 일반현황

1) 개 요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연합국가인 셈인데, 그레이트브리튼은 북부의 스코틀랜드, 남동부의 잉글랜드, 남서부의 웨일스로 되어 있다. 영국의 기원은 5-6C 경 게르만계의 앵글로 색슨족이 잉글랜드에 침입해 9C 경 통일된 왕국을 수립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앵글로 색슨족과 켈트족간의 갈등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영국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헌장(마르나카르타)의 제정을 비롯해 시민 혁명, 권리장전 등 세계 민주주의의 발생국인 동시에 제국주의의 아성을 쌓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차세계 대전이후 식민지의 잇따른 독립으로 화려했던 대영제국의 면모는 많이 사라졌으며,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도 중국에 반환되어 비로소 제국주의의 종말을 고했다.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원수이나, 정치적 실권은 수상이 가지고 있다. 주요 산업은 금융업, 철강, 관광산업이며, 주요 교역 대상국 유럽 연합과 미국이다.

2) 기 후

영국의 날씨는 '하루 동안에 4계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특징이다. 한여름에도 해가 가리거나 비가 내리면 냉기가 들 정도이다. 멕시코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겨울철 특히 바람이 없는 날에는 안개가 끼고 비 내리는 날이 많다.

연간 강수량은 많지 않으며 1년 내내 날씨가 흐리고 지나가는 비가 많다. 비교적 날씨가 좋은 시기는 5-10월이다. 1-2월의 평균 기온은 5℃이며, 7-8월의 평균 기온은 16℃로 한난의 차가 적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8-9시까지 밝지만 겨울에는 3시에 벌써 해가 지는 일도 있다.

3) 사회 문화

약 6,020만 명의 인구 중 주요 인종은 앵글로 색슨 계이며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은 켈트 계가 중심을 이룬다. 퀸즈 잉글리쉬로 불리는 정통파 영어가 공용어이며, 약간의 웨일즈어와 켈트어가 쓰인다. 영국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차갑고 꼼꼼한 인상을 주지만 대체로 공손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매우 유머러스하다.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문화 활동이 성행하고 있으며 많은 영국인들이 예술 및 언론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종교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약 29%를 차지한다

다. 교육제도

1) 학교형태

영국(UK)의 학교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여 전반적인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네 나라는 대개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 1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6-7년과 중등학교 6-7년(대학입시교육과정 2년 포함), 그리고 대학교육 3년으로 된 다양한 학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학교제도는 재정주체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도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1〉 영국의 학교제도¹⁾

Age	England & Wales:	Northern Ireland	Scotland
3	Nursery (non-compulsory)	Nursery (non-compulsory)	Nursery (non-compulsory)
4-5	Primary - Key Stage 1 Reception class	Primary - Key Stage 1 Year 1	Nursery (non-compulsory)
5-6	Year 1	Year 2	Primary P1
6-7	Year 2	Year 3	P2
7-8	Key Stage 2 Year 3	Key Stage 2 Year 4	P3
8-9	Year 4	Year 5	P4
9-10	Year 5	Year 6	P5
10-11	Year 6	Year 7	P6
11-12	Secondary - Key Stage 3 Year 7	Secondary - Key Stage 3 Year 8	P7
12-13	Year 8	Year 9	Secondary S1
13-14	Year 9	Year 10	S2
14-15	Key Stage 4 Year 10	Key Stage 4 Year 11	S3
15-16	Year 11	Year 12	S4
END OF COMPUSORY EDUCATION			
16-17	Year 12 (Lower Sixth)	Year 13	S5
17-18	Year 13 (Upper Sixth)	Year 14	S6

(가) State school (정부재원 학교)

영국에서는 “State school“이라는 용어는 학생들에게 무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재원의 학교를 의미한다. 영국정부는 근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의 구조 개혁을 통해 교육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정부재원의 학교(State school)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재원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은 세금을 통해 기금이 마련되며 부모들에게 무상이라는 점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교육과정의 통제를 받는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 대부분이 State school 학교유형에 속한다²⁾.

(나) Independent school

- 1) Financial Services Authority(2006),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schools: A UK benchmark study” .p57
- 2) Good schools guide 홈페이지, <http://www.goodschoolsguide.co.uk/which-school-to-choose/state-schools/state-schools.html>

이와 대조적으로 학비를 부과하는 학교들은 “Independent schools“, “Private schools“, “Public schools“ 등으로 불린다. Eton College, Winchester College, Harrow School, Radley College, Marlborough College 등 영국에는 크고 작은 2,500개 이상의 Independent school이 있으며, 전체 학생의 약 7%인 약 615,000명의 학생들이 이들 학교를 다니고 있다.³⁾

이들 학교들은 세자 또는 지역 또는 중앙정부의 조세제도에 의해 재정재원을 받지 않으며 대신에, 주로 학비부과에 의한 사적 재원, 기부, 장기간의 자선기금에 의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들 학교들은 공식적인 교육표준과 보건과 안전 등을 따라야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 밖에 놓이게 되어 정부의 재원제공에 따르는 의무적 조건들로부터 자유롭다⁴⁾.

2) 학년제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나라의 학년제도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유치원은 네 나라 공통적으로 3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교육을 위해 1년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나 아동들이 반드시 다녀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은 아니다. 취학 전 과정은 또한 의무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국정교육과정이 없다.

의무교육과정은 4세~18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14년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초등학교과정 6년(England에서는 Reception school 1년 포함 7년)과 중·고등학교과정 5년, 대학입시준비과정 (Sixth-forms)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Sixth Form 과정에서는 대학입학시험(GEE A-level)의 과목 중 대학에서 요구하는 3-4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2008년 전까지 이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니었으나 2008년 교육법 개정에 의해 2008년 Key Stage

3) Independent School Council 홈페이지, http://www.isc.co.uk/FactsFigures_PupilNumbers.htm

4) Good schools guide 홈페이지, <http://www.goodschoolsguide.co.uk /which-school-to-choose /independent-schools/independent-schools.html>

3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17세까지, 2009년에 Key Stage 3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18세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⁵⁾. 이것은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로 학생들의 학력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 교육과정 형태

(가) Key-stage의 4단계

영국의 국정교육과정은 학년별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4개의 Key Stage로 나누며 각 Key Stage 안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목의 시작시기를 결정하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국가교육과정(programmes of study)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포함하여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⁶⁾.

초·중등학교 기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연령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는데 초등과정은 Key Stage 1과 2로 구성되어 있으며, Key Stage 1은 4-7세의 2(3년)년 과정이고 Key Stage 2는 7-11세의 4년 과정이다(Scotland는 Primary가 7년 과정임). 중등학교과정은 Key Stage 3과 4로 구성되며 Key Stage 3은 11-14세의 3년 과정이고, Key Stage 4는 14-16세의 2년 과정이다(Scotland 는 Secondary가 4년 과정임). 중등과정에는 이상의 과정 이외에 대학입시준비과정인 16-18세의 Sixth Forms 과정이 각 학교와 별도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의무교육과정은 아니었으나 2008년 법 개정으로 의무교육과정이 되었다.

(나) 각 Key stage의 교육과정

초등과정 Key Stage1과 2에서는 <표 2>와 같이 English등 10 과

5) Tim Castle (Reuters) , “School starters have to stay until 17” ,Wednesday, September 3, LONDON (로이터 통신사 뉴스기사)

6) QCDA 홈페이지, <http://curriculum.qcda.gov.uk/>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Curriculum(Key stage 1&2)

목이 법령적 학습프로그램 (Statutory program of study)⁷⁾의 교과목이며, Citizenship 등 4과목은 비법령적인(Statutory program of study) 학습프로그램의 교과목이다. 이중 Religious education은 비법령적 학습프로그램이지만 필수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⁸⁾.

초등학교 각 교육과정의 stage가 끝나는 2학년과 6학년 말에는 QCA가 실시하는 QCA Test를 실시한다. 이는 전국적인 통일된 평가로서 시험의 결과를 과목별, 학교별 평균성적으로 발표하고, 이 결과는 교육부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와 학교나 교사의 평가수단으로 활용되며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중등과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은 Key Stage3 (11-14세:3년)과 Key Stage 4(14-16세:2년)이다. Key Stage3에서는 English와 Citizenship 등, 12 과목의 법령적 학습프로그램의 교과목을 가르치며, PSHEE(개인·사회·보건과 경제교육)이 비법령적인 학습프로그램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PSH&EE는 다시 EWFC 학습프로그램과 Personal Wellbeing 학습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Religious education은 비법령적 학습프로그램이지만 필수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2> 영국의 각 Key Stage별 학습프로그램⁹⁾

법령적 프로그램 여부	Key Stage1	Key Stage2	Key Stage3	Key Stage 4
법령적 학습 프로그램 (Statutory program of study)	English Mathematics Science ICT, Geography History Music	English Mathematics Science ICT, Geography History Music	English Mathematics Science ICT, Geography History Music	English Mathematics Science ICT Physical education Citizenship

7) Statutory : 국가교육과정이므로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하는 과목의 교육과정,
Entitlement: 학교는 반드시 과목으로 제공해야하지만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할 필요는 없는 교육과정

Non-statutory: 학교가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는 교육과정이지만 학생들이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Dr. Jacek Brant: Senior lecturer in Business and Economics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의 설명, The National Curriculum- Handbook for secondary teachers in England Key Stage 3·4, p 4)

8) QCA 홈페이지 ,[http://curriculum.qca.org.uk/key-stages-1-and-2/ subjects](http://curriculum.qca.org.uk/key-stages-1-and-2/subjects) 항목

	Physical Education Art & Design Design&Technology	Physical Education Art & Design Design&Technology	Physical Education Art & Design Design&Technology Citizenship Modern foreign languages	
비법령적 학습 프로그램 (Non-statutory program of study)	Citizenship PS HE	Citizenship PS HE, Modern foreign languages	Personal, social, health & Economic Education	Personal, social, health & Economic Education
비법령적 프로그램이 지만 법령의 교과목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Key Stage 4에서는 English ,Citizenship 등 6과목이 법령적 학습프로그램의 교과목이며, PSHEE, Religious education은 비법령적 학습프로그램이다. 역시 Religious education은 비법령적 학습프로그램이며 필수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Key Stage3의 말인 9학년에는 전국적으로 QCA가 주관하는 QCA Test를 실시한다. Key Stage 4 과정에서는 의무교육과정 마지막 과정으로 전국적인 중등과정 졸업자격시험인 학력인증을 위한 GCSE시험을 실시하며 여기에서 통과하면 학력인증자격을 얻는다.

라. 방문 교육기관 및 활동

1) Cranford Community College

(가) 학교 개관

런던 외곽에 있는 중, 고등학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이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교사, 학생들은 마음을 모아 Ofsted (영국의 교육표준청,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학교평가기준)에서 전 분야 1등급을 받았으며 그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반적인 효과	평 가	등 급 (1-4단계 중)
Achievement of pupils (학생의 성취도)	Outstanding (뛰어남)	1
Quality of teaching	Outstanding	1

9) National Curriculum 홈페이지, <http://curriculum.qcda.gov.uk/>

전반적인 효과	평 가	등 급 (1-4단계 중)
(교수의 질)	(뛰어남)	
Behaviour and safety of pupils (학생의 행동과 안전)	Outstanding (뛰어남)	1
Leadership and management (리더쉽과 경영)	Outstanding (뛰어남)	1

11세-19세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전교생은 1400여명이다. 학생들의 88%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문화학교이며 25.5%의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37.5%의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프칸, 소말리아, 인도 학생들이 적응에 힘들어하여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hilip Dobison 선생님의 브리핑



학교 내부 시설에 대한 설명

(나) 학교의 우수성

◆ 전통적인 썬머스쿨 프로그램 운영

Summer School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는 분주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방학을 이용하여 지역의 8세-10세 학생을 대상(향후 Cranford Community College의 학생이 될 대상자)으로 학교의 홍보와 보육프로그램, 사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무상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약 2주간 운영되며 스스로 지원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학급

당 15-30명으로 나누어 미술, 뮤지컬, 음악, 미술 등의 종합적인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2주가 끝날 즈음 참가학생들이 연습한 작품을 학부모 초청하여 무대에 올리는,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Cranford Community College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레벨 통과를 자랑하는 환경구성



Summer School 참가자들과 함께

◆ 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런던의 중심지역 못지않게 좋은 교육의 효과를 얻은 것은 교사들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하고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신규 교사들을 위한 2년 동안의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나 유능한 교사의 가능성을 보이는 교사를 위한 트레이닝 코스도 유명하며 교사들간의 수업기술과 학생지도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가정과 사회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장애학생들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과정을 제공하여 학습부진아들도 읽기 및 수학에서 빨리 받아들이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추가로 배우는 학생들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5년 동안 학생들을 담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학생과 교사의 긴밀함을 추구하고 미술, 연극, 음악 등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하도록 하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한 진로·상담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다.

◆ 학교의 예산 지원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 의존하나 정부의 지원금 외에 학교에서 모든 시설들을 지역 주민과 이웃학교에게 개방하여 생긴 수익금, 학교간 경쟁 프로젝트 우승하여 받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Ofsted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예산지원을 더 받고 있다고 한다.

2) LVS Ascot(the Licensed Victuallers' School)

(가) 학교 개관

LVS Ascot은 런던에서 원저방향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로얄 아스콧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로서 정부나 지방교육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다.

이 학교는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 Education : OFSTED)에 의해 평가받는 교육기관이며, 지방 교육국(LEA)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상당히 독립적이다. 오랜 전통과 훌륭한 교육과정, 고액의 학비 부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배려심과 자신감을 지닌 미래 시민 양성(developing caring and confident citizens for the future)'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LVS Ascot은 학생 수가 900여명(보딩 200여명, 데이 700여명)이며,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스쿨과 시니어스쿨 모두 보딩을 운영하며 뛰어난 학문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학교로서, 시니어 과정에서는 학생들을 기숙사(Bass House, Guinness House, Carlsberg House, Gilbey House 등 총 4개 건물에 약 200여명의 보딩 학생들이 있음)에 배정하고 개인 담당 튜터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를 실시한다. 사감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외출 및 외박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음악, 미술, 스포츠(축구, 럭비, 크리켓, 승마 등), 드라마 등 모든 영역의 과외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국의 상위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나) 학교의 우수성

◆ 교육의 다양성

영국은 학교교육의 수월성, 사회에서의 적응력,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성취수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이기 위해 1988년 교육개혁법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LVS Ascot에서는 국가교육과정제도 아래에서도 학생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 개인차를 인정해주는 수업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 쉬운 시험지와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각 학생마다 개별적인 성취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교육에서는 낙제가 없다. 즉,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은 자신

이 지는 교육과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외도 거의 없다. 영국에서의 과외공부 역할은 자립형 학교(Independent School)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류학교 출신이라 해도 취업에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개개인의 능력과 그에 따른 다양한 성취도,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인정받는 곳이 영국이다.

◆ 학력평가 제도

국가교육과정과 더불어 교과목별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학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력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게 한다.

◆ 학교 간 정보 교류 활성화

학교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학교 간 지식, 경험,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학교 경영이 우수하여 높은 성취수준을 달성한 학교를 Beacon School로 지정하고 주변의 학교들을 Beacon School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Beacon School의 우수한 경영 능력, 학습지도능력, 교육과정 편성, 인사관리 등 제반 우수 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eacon School의 지위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발전이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마.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1) 다양성을 위한 노력

영국은 학제, 교육과정, 평가 등의 분야에서 다양성을 가진다. 학생들은 학제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다른 학교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학년의 구분도 학교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시험에서도 다양성을 나타낸다. GEE 자격시험의 경우 출제기관이 다양하고 출제기관 별로 문제도 다양하며, 동일기관이나 동일과목에서의 시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GEE 자격시험의 등급은 어디에서도 똑같이 인정되며,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스스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2) 학교 간 정보 교류체제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개별학교의 우수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범학교는 그 우수성을 주변학교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eacon School과 같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우수학교를 지정하고 주변의 학교가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정보, 지식, 경험, 기술 등을 교류하고 상호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간의 공동 노력, 협조, 전문 지식, 경험의 교류가 없는 우리 교직 문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학교간의 협조 체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3)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공동체 형성

영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교육특별지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조체제 구축 및 공동체 형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특별지구는 학업성취도가 낮고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교육특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익단체, LEA, 학부모, 학교, 기업체 등의 인사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교육특별지구의 20여개의 학교를 포함하는데, 전체를 위한 실행계획과 개별학교를 위한 실행계획을 만든다. 교육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일정한 지원금을 받게 되고, 교육과정, 교사의 급여 및 조건, 등교 일수 등에 대한 재량권을 받게 되며, 교육특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지방교육당국, 학부모, 민간 기업 등이 협조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사회
의 협조체제 구축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교육특별지구는 우리 교육
에도 접목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4) 학교평가와 학교 개선을 위한 노력

현재 학교의 성취수준이나 학교 경영 현황을 판단하여 책무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제가 없는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학교 평가의 측면에서 영국의 사례는 모범이 될 수 있다.

영국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학교 평가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를 6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 영국의 학
교평가는 단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학교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받은 학교의 상황을 전반
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학부모 및 언
론에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
을 주고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게 한다.

학교평가 결과 성취수준이 낮거나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다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학교 개선을 유도한
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학교의 성취수준이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문제
가 발생하면 학교를 폐쇄조치함으로써 학교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강
제하기도 한다.



LVS Ascot의 수영장



LVS Ascot의 급식소

5) 취학 전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필요의 발견과 대책 수립

영국은 특별한 교육적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아동을 선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취학 전의 아동을 평가하여 관심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6) 정책의 일관성 유지

1980년대 초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영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학교평가체제 구축 등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7년 노동당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정책에는 변함이 없었고,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 방문소감

영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우리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 1) 한국교육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 '홍익인간(弘益人間)'이 그 철학이라면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가?
- 2) 194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입제도는 여러 번 개편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잦은 개편이 진실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을까?
- 3) 한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자주 교체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겠는가?

2. 스페인

가. 일반현황

정식명칭은 '에스타도 에스파뇰'(Estado Espanol)이며, 영어명은 '스페인왕국'(Kingdom of Spain)이다. 유럽대륙의 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포르투갈, 북쪽으로 프랑스에 접하고, 남쪽으로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마주하며 동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비스케이만(灣), 북서쪽으로 대서양에 면한다. 국토는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레아레스 제도(諸島), 카나리아 제도에 흩어져 있다. 모로코 북부에도 에스파냐령(領)인 세우타, 멜리야 및 모로코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3개의 작은 섬인 차파리나스(Chafarinas), 페논데알우세마스(Penon de Alhucemas), 페논데벨레스텔라고메라(Penon de Velez de la Gomera)가 있다. 행정구역은 17개주(comunidad autonoma), 2개 해외 자치시(ciudad autonoma)인 세우타, 멜리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50만 5,370km²이며 인구는 4737만 1052명(2008년 현재), 수도는 마드리드(Madrid)이다.

종족구성은 라틴계 스페인인, 이베리아인, 게르만인, 아랍인 등이다. 언어는 스페인어가 통용되며, 전인구의 94% 이상이 가톨릭교를 신봉한다.

기후는 대체로 여름에 건조 상태가 심한 지중해성 기후이지만 국지적으로는 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곳도 있다. 북서부와 칸타브리아산맥, 피레네산맥일대에서는 비교적 비가 많아 연간 강수량이 1,500mm를 넘는 곳도 있지만, 레온 지방과 지중해 쪽의 무르시아 지방은 강수량이 적어 연간 400mm 이하이다. 내륙지방도 강수량이 적는데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하여 국지적으로는 스텝 또는 사막과 같은 경관을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북동부의 카탈루냐 지방은 이탈리아, 프랑스의 리비에라 지방의 기후와 비슷하며 해안은 겨울에도 비교적 온난하다. 건조한 기후조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생에 부적당하여 민둥산과 척박한 다

갈색 토양이 주를 이루며 북부의 산지에서만 삼림을 볼 수 있다. 전국토 중 경지는 11%, 초원은 18%, 산림지대는 56%이다.

나. 교육제도

에스파냐는 6~14세는 의무교육이고 대부분의 학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3년 4, 5세 아동 전원 및 3세 아동의 94.7%가 유치원에 등록하였다. 중등교육을 마치면 예비대학과정과 2차 전문학교를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 단계가 끝나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1학기는 9월1일 시작하여 이듬해 1월말까지 이며, 2학기는 2월1일에 시작하여 6월말에 끝난다. 우리나라와 달라 특이한 점은 12월 23일부터 1월7일까지는 크리스마스방학이며, 성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성(聖)주간(고난주간) 방학이 실시된다고 한다.

공식적인 여름 방학은 8월 한 달간이지만 시험에 일찍 통과한 학생들은 6월말부터 방학에 들어가나 그렇지 못한 학생은 7월 ~8월에 걸쳐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방학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일반계 대학 진학률은 매우 낮으며 고등교육은 아직까지 국한된 계층만이 받는다. 학교교육은 가톨릭 및 '팔랑헤 국민운동'을 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실시되며 종교적·도덕적 이유에서 대학 이외의 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을 하지 않는다. 15세 이상 문맹률은 3%이나 남부지방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맹률은 높게 나타난다. 취학률은 2004년 초등이 108%, 중등이 119%, 고등학교가 66%이며, 공공교육비 지출은 2003년 GDP대비 3%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2002년 초등교육이 4,592\$, 중등교육이 6,010\$, 고등교육이 8,020\$이다. 2004년 사빠테로(Zapatero)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 출범 이후 구교육법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의무 종교 교육 및 우열반 분리제도에 따른 교육 과정 시행을 중단하였다.

다. 방문 교육기관 및 활동(University of Salamanca)

살라망카 대학은 1218년 ALFONSO 9세 왕에 의해 창립된 현존하는 스페인 대학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학교로서 개교 이후 문화와 교육의 초점이다. 오늘날은 학문적인 제목의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관련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유명인사인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다. 세계 19개국에서 7천여 명이 이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유학을 오는 학생들 중 대부분은 자국의 대학생들이다. 참고로 스페인의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동시에 2개 국어를 배우는데 정규과정 외에 중국어나 다른 언어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현재 살라망카 대학에는 약 3만 5천여 명이 재학 중이다. 등록금은 학점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고득점자 일수록 등록금을 적게 낸다. 그리고 학생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등록금이 다르다. 스페인 내 국립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입시를 보아야 하며 시험은 2~3일간 계속 보게 된다. 시험 성적 40%, 내신 60%정도로 반영을 하며 국립대학의 장점은 스페인 내 모든 국립대학으로 전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 우리교육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제2외국어를 중요시하는 만큼 스페인에서도 제2, 제3외국어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시에 2개 국어를 학생들에게 조기학습시킴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에 따른 등록금제도가 가장 학생들에게 이로운 점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도 시행하다가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면서 제도에 대한 불평등론이 제기되면서 이 정책이 한발 후퇴하기도 하는 우역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이다.

스페인의 국립대학 학생으로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립대학 간에 전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집을 이사하게 되거나 부모의 직장 이동으로 인하여 집과 대학 간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 유용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좋은 제도는 충분히 연구하여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고등학교 졸업생 중 희망하는 학생은 거의 대부분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일반계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때 부터 대학진학이 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先就業 後進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며,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어 우리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좋은 제도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은 학업스트레스나 취업부담에서 벗어나고, 학부모는 대학등록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페인 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며,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우수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를 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과정을 포함시켜 교육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우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창 고등학교 교육에 무상교육을 도입하자고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유럽선진국과 같이 무상 교육을 언제 도입해야 할지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고교무상교육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판서로 설명을 하시는 교수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마. 방문소감 (수업참관 소감)

수업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수업 인원이 15명 ~20명 정도로 우리나라 수업 인원의 절반 정도였으며, 이날은 10명의 학생이 출석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교구나 기구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했다. 빔프로젝터, 작은 녹음기 한 대, 작은 칠판에 분필로 판서를 하며, 교사용 작은 나무 캐비닛이 교실비품의 전부였다. 우리나라 교실에 컴퓨터와 대형 IPTV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며, 역시 한국이 IT강국임을 실감케 했다. 국제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여 보니 수업은 숙제 검사를 하는데 각자 숙제해온 것을 발표하면 교사가 점검하면서 판서를 하여 설명을 하여 주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뒤처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인원이 적은 만큼 교실 크기도 우리나라 교실의 절반 크기 정도였다. 특이한 점은 교실 규모에 비해 전등 수가 매우 많았는데(32W 더블 형광등 * 14개),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밝은 학습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배려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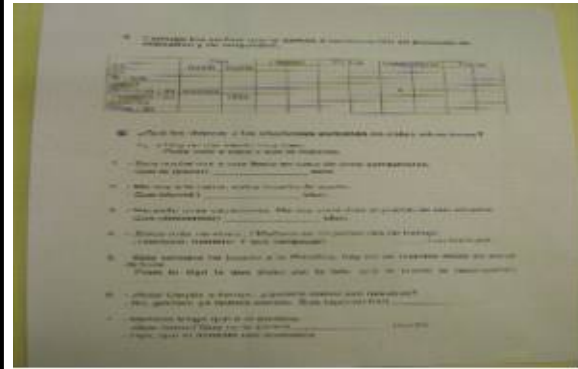
우리가 방문한 살라망카 대학은 불과 몇 년 후면 개교 8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오래된 역사가 부럽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도 짧은 대학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세계 우수대학을 따라잡으려는 많은 노

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에서 이런 우수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세계적인 대학들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해 본다.

이처럼 살라만카대학은 800여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 학교 내에는 700년된 나무의자와 책상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역사의 산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조금만 낡아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점에 적잖이 놀랐다. 나무로 된 의자와 책상이 700여년 이상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덥고 습한 기후와 달리 스페인의 건조한 날씨 탓에 오래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현장에도 이젠 조금 낡고 불편하더라도 오래된 것 자체가 그 학교의 역사가 될 수 있는 비품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또 한 가지 이 대학교의 자랑거리는 400여 년간 사용하던 도서관을 그때 당시의 장서와 함께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도서관에 그 당시의 수많은 책들을 보관하고 있어 언제든지 당시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왕실의궤” 같은 아주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남아 있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기록 문화에 더 소홀한 게 아닌가 싶다. 불과 십년도 채 안된 몇 년 전의 대통령 시절에 작성된 대통령 관련 기록문서가 없어져 사초 증발이 아니냐 하는 걸 보면서 새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일행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통해 스페인 교육제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업에 사용된 학생들의 과제물



대학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임혜경 부산교육감

IV 총 평

영국과 스페인의 교육기관을 돌아보며 우리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 초등학교 때부터 아동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각 과목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과목과 취미가 별로 없는 과목을 변별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사도 과목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교육은 교육자가 전담하고, 학부모는 교육문제에 전문성이 결여된 자세로 교육에 대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건강과 정서 관리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을 잘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이러한 풍토는 영국 및 유럽에서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학부모를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동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학업경쟁보다는 인성 발달에 관심을 두는 자세를 지님으로써 교육에 대한

인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면 좋겠으나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학부모를 수업보조교사로 활용하거나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인적자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 영국은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이 한국보다 낮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이미 각 과목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글로 쓰는 방법을 훈련받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데에 능하고,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분별하며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도 이를 참고하여 초등교육부터 민주시민 양성에 힘써야 한다.

◇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은 불과 몇 년 후면 개교 8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오래된 역사가 부럽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도 짧은 대학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세계 우수대학을 따라잡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에서 이러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세계적인 대학들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해 본다.

◇ 살라망카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등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입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모습과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어려워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어가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우리의 대학과 입시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